

전남도, 낙후 섬 개발 법 개정 '총력'

전남도가 낙후된 섬을 개발하기 위한 법개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서개발 촉진법은 섬의 생산·소득 및 생활 기반시설 정비·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해 섬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은 육지와 연결하는 다리가 개통된 10년이 됐거나 10인 미만인 섬은 개발 대상에서 제외되고

도서개발 촉진법, 섬 주민 소득 증대·복지향상 도모

개정법안 국회서 장기 계류 중... "반드시 개정돼야"

록 규정됐다.

전국 섬의 65%를 차지하는 전남 지역에는 15개 시군에 2165개 섬이 있으며 이 가운데 연륙·연도교가 건설돼 10년이 지난 섬은 완도·고흥·신지도·약산도, 장흥 노력도·고흥 지족도·백일도·육금도 등 24

개소 10인 미만이 사는 섬은 46개 소나 된다.

이 섬들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서 빠져 국가 개발 관리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섬 주민의

편익과 개발을 위해 지난해부터 '연륙 후 10년 경과, 10인 미만 낙후 도서 개발을 지원하고 국가 기념일로 섬의 날을 제정하기 위한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다리 개통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도 개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개정법안이 지난해 10월 운영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고, 10인 미만 유인도서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개정법안이 박순자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이 개정법안들은 국회에서 법안이 장기간 계류 중이어서 전남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만큼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또 섬 여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객선 운임지원 제도 도입도 함께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섬 지역으로의 관광객 증가로 관광산업 발전과 여객선사의 수익 증대에 따른 연안 해상 운송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 섬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정희 전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영도 수호의 전진기지이자 국가 자산인 섬의 가치를 높이고 섬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섬 개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서개발 촉진법이 반드시 개정되고 여객선 운임 지원 제도가 도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윤장현 광주시장, 국회 힌츠페터 5·18 사진전 참석. 윤장현 광주시장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힌츠페터 5·18 사진전'에 참석해 내빈들과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5·18정신의 헌법 전문 게재에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기획전으로 오는 20일까지 5일간 열린다. (사진 왼쪽 다섯번째부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장현 광주광역시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광주도심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 따가세요”

광주시 다음달 10일까지 채취 허용... 시민 신청 접수

광주시가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의 약취 피해 등을 줄이기 위해 16일부터 11월10일까지 채취 기간을 운영한다.

광주시는 16일 은행나무 열매의 무분별한 채취와 약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은행나무 열매를 채취할 시민들로 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달 은행 열매의 중금속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 도로변 10곳의 샘플을 채취, 보건환경연구원에 중금속 함유 여부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 '적합'으로 판정됐다.

은행열매 채취는 5개 구청 공무원복지과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채취 요청 등 주의사항에 대해 사전교육을 받으면 가능하다.

가로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로 차거나 나무에 올라가서 흔드는 행위, 가지를 부러뜨리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사전 신청없이 은행나무 열매를 무단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광주시 김종열 공원녹지과장은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시민불편을 덜기 위해 지난해부터 수정기에 적화제를 사용해 효과를 보고 있다"며 "열매 약취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남도학숙·서울사무소 방문

공사 현황 청취·시설 확인 등 직원 긴급회 실시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서동욱)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제2남도학숙 신축 현장과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

이번 현지방문은 11월에 준공하는 제2남도학숙 공사 현황청취 및 시설들을 확인하고 전라남도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긴급회를 열어 업무보고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계획됐다.

제2남도학숙은 2018년 2월 개관할 예정이며, 학생정원 604명(전남 302, 광주 302)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로 서울시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다. 또한, 편리한 교통여건과 주요 대학과의 접근성이 좋고 주거권 용지역에 유호·위락시설들이 없는 등 쾌적한 면화 환경을 조성했다.

서동욱 위원장은 "현 전남도학숙은 한강 이남이지만 은평구 부지는 한강 이북에 위치해 지리적 균형이 확보되고 대학별로 학수 선택폭이 확대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김승호 전남등부채본부장

제1회 총장로 쓰레기 줍기 대회 눈길

지난 14일 총장로에서 제1회 총장로 쓰레기 줍기 대회가 열려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총장동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주민이 직접 깨끗한 마을만들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복잡한 규칙이나 의견 없이 한바탕 축제로 진행됐다. 개회시작을 알리는 '출발'이라는 구호에 맞춰 학생, 상인,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의 참가자들이 저마다 집계와 쓰레기봉투 등 청소도구를 들고 총장로 일대의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다.

심사도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사위원 5인 중 2명은 총장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이 맡고 나머지 3명은 현장에서 즉석 섭외됐다.

서구, 탈수급 근로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광주 서구청이 기초의료급여가 중지된 근로저소득층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지활기금을 활용하여 사회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자립과 생활안정을 돕는다.

지원대상은 2016년 7월 1일 이후 근로사업소득의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40%(4인가족, 1,786,962원)를 초과하여 기초의료급여가 중지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60%(4인가족, 2,680,428원) 이내인 가구(자활급여특례자 포함)가 해당된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남구, 사회적기업 후원 영화 가을우체국 시사회

13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7시 남구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영화 '가을 우체국' 시사회가 진행된다.

이번 시사회는 가정 형편 등 여러 사유로 인해 영화 관람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성원들이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내 취약계층 자녀와 부모 및 주민 등 약 300명 가량이 참석할 예정이다. 임왕태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가수 보아 및 배우 임화주, 오광록씨가 주연을 맡은 이 영화는 올해 열린 전주 국제영화제 상영작으로 전석이 매진돼 화제를 불러온 바 있다.

'가을 우체국'은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사연을 지닌 두 남녀의 로맨스를 반짝반짝한 감성으로 풀어낸 영화이다.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전국 우수사례 꼽혀

광주 북구가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 재정자치를 구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는 오는 18일 기획재정부 참여예산패널(일기근 재정심의회)에서 북구를 방문, 주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에 대한 의견수렴 등 우수사례 견학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소통행정 모델로 북구가 지난 2003년 전국 최초로 시행했으며, 전국 지자체의 표준모델로 인정받아 지난 2011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의 모태가 되기도 했다.

광산구, 문화재 활용 사업 문화재청 공모 석권

광주 광산구의 문화재 활용 사업들이 2018년 문화재청 공모 3개 분야 전체에 선정돼 국비 2억4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광산구는 "문화재청의 한교·사원문화재활용사업, 생생문화재사업,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보존에서 동시대인과 호흡하는 문화거점으로 만들고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비 지원을 걸고 사업을 공모했다. 각 지역이 보유한 문화재와 문화유산을 역사교육의 장과 고유문화 계승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게 취지이다. 광산구는 월봉서원과 무양서원 프로그램을 제출해 향교·서원문화재활용사업 분야에 선정됐다.

임형택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재기자 모집합니다"

고흥 · 구례 · 목포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양도상속증여
- 기업 진단
- 기 장 대 리
- 건설면허신청
- 외부 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융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 석면 해체공사
- ▶ 지점·건설 폐기물 처리
- ▶ 석면조사

측량 >> 토목 설계 >> 도시 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탁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